프로젝트 접근법의 반성적 실천: 그 이해와 오해

윤은주
대구가톨릭대학교 유아교육과

<요 약>

이유는 분명하고, 특정 교수법 혹은 프로그램이 보편화되어 그 과정이 완전독일, 우리로서는 그것이 의도된 대로 전개되고 있는지 정점할 필요성은 그만큼 커진다고 볼 수 있다. 최근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현장에서 통합교육과정의 한 방안으로 활발히 실천되고 있는 프로젝트 접근법 실천의 반성적 접근이 이 글의 목적이다.

두 가지 관점에서 현 실천상의 문제점을 조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: 프로젝트 접근법을 주제학습과 혼동하는 경향이 그 첫째이고, 단계 적용의 경제성이 그 둘째이다. 두 문제 모두 프로젝트 접근법의 '정신'을 체계한 결과 나타나는 문제다. 따라서 그 정신인 '유목적적 물임' 혹은 '삼으로서의 학습'을 포괄하는 일이 프로젝트 접근법을 바로 실천하는 전반에 대한 것을 다음과 같은 점자를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. 우선, 현 실천에서 문제점들을 밝히며 후 동계, 그 문제점들의 표면적 원인과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였다. 세째, 프로젝트의 시초인 Kilpatrick의 구간법에서 해결 방안, 즉, 정신의 옴바른 이해를 통한 실제의 적용을 제시하였다.

핵심어: 프로젝트 접근법, 구간법, 유목적적 물임, 삼으로서의 학습

I. 서 론

교육이론이 창시자의 초기의도와는 달리 적용되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. 최근 유치원이나 혹은 통합교육과정 접근법으로 초등학교에서 그 적용 번도가 높아지고 있는 프로젝트 접근법도 그
한 예라 볼 수 있다. 우리에게 알려진 시기와 방법의 유사한 예로도 여전히 문제점, 교육과학,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

저작권을 중심으로 많이 보급되어 있다. 그것은, 연수 프로그램에서 자주 다루어지기 때문일 수도 있고, 교사용 지도서를 쉽게 접할 수 있어서도일 수 도 있고, 연구에 의해 그 효과가 인정되고 있기


* 교신저자: ejun@cu.ac.kr / 010-7393-2378
나 기존 교육과정과 쉽게 접목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일 수 있다. 이유를 붙여보고, 프로젝트 접근법이 보편화되어 그 과정이 커질수록, 우리로서는 이것이 의도된 대로 전개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. 그만큼 커진다고 볼 수 있다. 예컨대, Katz & Chard(2000, 35-38)가 명확하게 구분한 지적 성장(intellectual development) 대신 지식의 국적(academic development)은 프로젝트 접근법에 압도적으로 추구하고 있는지 모를 것이다.


요컨대 이 글은 (1) 실천에서 드러나는 “프로젝트”라는 용어에 대한 이해상의 혼동에 관해 논의하고, (2) 단계의 교조적 적용의 문제를 논의한 후, (3) 프로젝트 접근법의 바론 실천을 위한 기반이 될 ‘성찰’을 논의하는 순서로 따름 것이다. 단계의 경직성을 논의하는 부분에서는 레오로 에밀리아 교육과 대비해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고, 정신의 문제를 논의하는 맥락에서는 문제해결법의 역사적 선례인 “구안법” 혹은 프로젝트 접근법의 정신을 비중 있게 다루게 될 것이다.

II. “프로젝트의 이해 문제


주제(theme)는 일반적으로 “개념”이나 “동물” 같이 큰 개념 혹은 토막을 의미한다. 교사가 주제